

濠洲의 教育制度와 뉴 사우스 웨일즈 大學校

李 啓 準

(서울大[微生物學科])

1. 地理·歷史 및 政治的 特性

1) 국토 및 기후

호주의 교육 제도를 소개하기 전에 호주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는 한 대륙이 오직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다. 동경 113도에서 153도 39분까지, 그리고 남위 10도 41분에서 43도 39분까지의 사이에 위치한 본토와 그 동쪽에 위치한 타스마니아로 되어 있고 그 넓이는 7,682,300km²로 미국의 본토와 거의 비슷하며 한국의 약 35배에 해당한다. 아 대륙 섬의 특징은 강우량이 연간 470mm 정도이며 대륙의 중심부는 국토의 30% 정도인 사막으로 되어 있다. 전 국토의 70%는 자생초를 이용한 목축이 가능하나 약 15% 정도만이 인공적 목축업 및 농업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후는 열대성·온대성 및 냉한대성을 위도에 따라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간 온화한 편이다. 이렇게 같은 위도의 다른 대륙에 비하여 기후가 온화하고 하늘이 맑은 이유는 동 대륙에 높은 산맥이 없고 이 대륙을 감싸고 있는 바다의 난류가 완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여름철은 12월에서 2월, 가을철은 3월에서 5월, 겨울은 6월에서 8월, 그리고 봄철은 9월에서 11월까지로 청명한 하늘과 오염되지 않은 기후, 산하의 청결함이 이 국가의 특징이요 자랑이라 할 수 있다.

2) 역사

호주의 초기 역사를 보면, 원주민은 3만 8천 년 전에 아시아 대륙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즉 그 당시에는 두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바다의 수위가 높아져 이제는 상호간 분리된 대륙이 되었다고 한다. 이 원주민을 Aborigines라고 하는데 유럽, 특히 영국인이 이주하기 전에는 약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기 좋은 동남부의 해안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 당시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세심하게 적응하여 운택하고 복잡하며 특이한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여 왔으나 유망적이고도 원시적 생활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들은 현재 북쪽의 Northern Territory에 집단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 대륙이 유럽인에게 알려진 것은 A.D. 2세기로 추정되나 실제로 이주가 시작된 것은 1787년 5월 13일 영국의 A. Phillip이 11척의 배로 1,030명이 영국을 떠나 1788년 1월 18일 현재의 시드니 근처 Botany Bay(보타니만)에 도착한 것이 처음이다. 1988년 1월에 호주 100주년 기념 행사가 펼쳐진 것은 이를 기념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영국인이 이주하게 됨에 따라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3년에는 영국으로부터의 자치권을 인정받았고 1901년에는 호주 연방 헌법에 기초한 연방 의회가 구성되었다.

3) 정부 및 국민

호주 정부는 국토가 넓기 때문에 州 政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퀸스랜드(Queensland), 타스마니아(Tasmania) 및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와 연방 정부의 수도인 캔버라가 있는 Australia Capital Territory (ACT)로 되어 있다. 호주는 연방 정부와 의회는 국가의 이익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주 정부 및 의회는 호주의 헌법과 주 고유의 헌법에 준하여 독자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성문 헌법 국가이다. 英 연방의 한 국가로서 총 총독(Governor-General)과 주 총독(State Governor)은 영국 여왕을 대표하는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원수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의 수반은 수상(연방 정부의 경우 prime minister, 주 정부의 경우 premier)이다.

국토의 크기에 비하면 인구는 1천 6백만 명 정도로 매우 적은데 이들도 대부분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퀸스랜드는 남부 지역 및 Western Australia의 남부 등 해안에 따라 분포되어 있다. 지난 25년간 평균 인구 증가율은 1.5% 정도인데 이는 주로 외국에서부터 이민으로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며 현재 인구의 1/5 정도는 외국에서 태어난 후 이주해 온 사람이다. 이민이 주로 영국과 유럽에서부터 이루어졌으므로 이른바 白 蠶主義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1966년부터 이 정책이 소멸되면서 최근에는 아시아계의 이민이 크게 늘어 1980년에는 총 이민의 23% 정도가 아시아계 사람이었다. 현재 인종은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인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고 아시아인으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 등이며 한국인의 이민도 증가되고 있다.

2. 教育制度

1) 의무교육

호주에서는 교육에 대한 행정은 주 정부에 있

다. 모든 각 주에서는 아동의 6세부터 15세까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공립학교(government school)에는 수업료가 없다. 그러나 종교 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립학교에는 수업료를 받는다. 호주의 일반적인 학제는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4세부터 다니는 보육원(pre-school center), 5세부터는 예비학교(infantry school)에 정식 등록 2년간을 그리고 초등학교(public school)에서 4년간 공부하여 한국에서 국민학교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과정을 6년간 하게 된다. 7학년에서 시작하여 12학년까지 계속되는 고등학교(high school)에서는 한국의 중·고등학교 과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포괄적 또는 다목적적 교육을 수행하는 남녀 공학제를 실시한다. 즉 영어, 수학, 지리, 역사, 외국어 등의 일반 교과목 이외에 가정학, 상경제 학과목, 기타 목공, 농업, 공업 등의 일반적 기술 습득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강의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소양, 지식,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고등학교에서 3년 또는 4년간을 공부한 단계에서 학교 자체 교사들에 의하여 성적 및 적성 평가에 의하여 기술교육과 고등교육 방향으로 구분된다.

2) 전문 및 기술교육

고등학교 3년을 마친 뒤 기술교육 방향으로 결정된 학생은 기술전문대학(technical college), 농업대학(agricultural college), 교육전문대학(college of advanced education) 등등의 전문 직업교육이 목적인 대학(college)으로 진학한다. 이러한 전문대학의 교과과정은 매우 다양하며 그 요구되는 숙련도에 따라 교육 기간도 다르다. 즉 기술전문대학 중에는 몇 가지 전문 분야를 다루는 복수 과목제 대학과 농과대학이나 음악학교와 같은 단일 과목제 대학이 있다. 또한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전문대학의 경우도 초등교육에 필요한 교원은 3년간의 교육전문대학 출신이지만 고등학교의 교원은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뒤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diploma of education)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재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는 교육학 등 특별 교육과정에 실시하는 교과목을 대학 초학

년에서부터 동시에 이수하게 하여 졸업과 동시에 교원의 자격을 얻도록 하는 제도가 병행되고 있다. 호주에는 약 68 개의 전문대학이 있다.

이밖에 기술교육과 추가 기술교육을 위한 기술학교(technical education)가 주요 산업 기술과 함께 상업, 예술, 가내 작업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교육이 실시된다. 이 교육과정에서 기술의 재연수도 가능하고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일정한 자격증을 수여한다. 호주에는 이러한 기술학교가 219 개가 있다. 고등학생의 약 19% 정도가 이상의 전문대학에는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 고등교육

고등학교 3년 후에 계속 고등교육 방향으로 지원·선발된 학생은 계속하여 2년간 고등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 12년을 수료하면 소정의 국가고사를 통하여 종합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42%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하여 대학으로 진학한다. 현재 호주에는 21 개 종합대학이 있다. 지난 10년간 단과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거나 또는 신설되는 등으로 종합대학의 수는 2 배로 증가하였다. 각 대학은 예외 없이 학과별 입학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대학교육은 영국의 교육 제도를 따르고 있다. 즉 대학 1년차는 분야별 기초 과목을 이수한 뒤에 2·3년차에 전공을 주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신청하여 수강한다. 3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직업을 선택하여 사회로 진출하기도 하며 계속하여 석사 이상 박사학위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대학 4년차로 진학하여 학사학위를 신청한다. 이 경우를 통상 honour course 라고 하는데 1년간 강의의 수강,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 연구에 몰두하여야 한다. 그 결과 1등급을 받으면 곧장 박사학위 과정으로 진학하게 되고 2등급 또는 그 이하일 경우는 2년간의 석사학위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박사학위 과정으로 진학하게 된다.

대학의 기능은 1~3년차 학생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과 honour, 석사 및 박사 과정의 학생과 함께 하는 연구 역할로 대별된다. 1~3년

까지의 교육은 현재 한국에서의 대학교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박사 과정은 강의 과정이 없이 오로지 연구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에 따른 논문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 통상 전일제로 하여 3~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박사학위의 연구는 혼자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기까지 1~2년은 지도 교수의 친절한 지도가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일정한 수준의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혼자서 능력을 개발하면서 연구하여야 비로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즉 천재적인 두뇌와 발군의 노력이 있어야만 박사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교육 제도처럼 잘 짜여진 교과목 수강과 부여한 일부의 연구 결과로 수여되는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전체 기능으로 보아 연구가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 역시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적감하고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1987년에 집계한 유학생 수는 2만 8천 명 정도임) 외국학생 중 개인 차원에서 입학한 경우 비자 발급 수수료를 수업료 대신 부여하고 있다. 박사학위의 학생은 호주의 경우 정부로부터 장학금이 수여되고 국가간 협력 관계로 온 유학생도 호주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며 비자 발급 수수료도 면제되거나 기타 학생이 장학금을 별도로 받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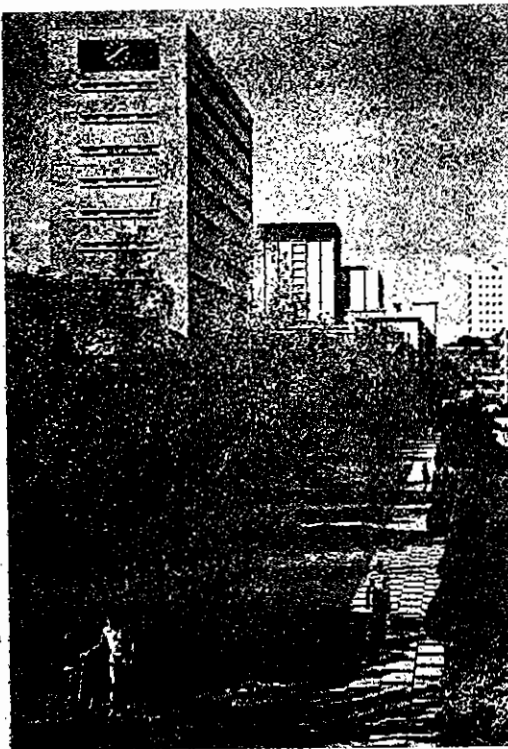
3. 科學과 技術

호주내 과학 및 기술 연구의 총 본산은 곧 대학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호주내 각종 연구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상호 협조하므로 기초 과학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가는 나라의 하나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주를 1차 산업의 나라로 간혹 과학 기술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호주의 각 대학의 기능과 이를 위한 정부의 투자 및 과학자간의 밀접한 협조 체계를 잘 모르는 피상적 판단에 기인한다 하겠다. 호주 정부는 세계의 경제적 풍토가 호주를 1차 산업 주도국으로부터 고급 기술 및 기초 과학의 선진국으로 이끌고 있

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세계 2차 대전 이후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과학 및 기술 연구를 급속도로 확대하였다. 특히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호주원자력위원회(AAEC), 과학기술성, 호주해양과학연구소(AIMS) 및 국방성이 연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총괄하는 과학기술평의회(ASTEC)를 1978년 설치하여 정부의 과학 기술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과학기술성은 호주연구보조기금(research grant scheme)을 관장하여 막대한 예산을 각 대학의 교수에게 지급하고 있다.

호주에는 250 개를 넘는 기술·전문 협회 및 학회들이 있어서 각 전문 과학분야의 발전과 조직적 연구를 도모하고 있다. 1954년 영국 여왕에 의하여 설립된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는 물리학과 생물학을 관장하는 이 나라의 최고 권위 기관이다. 또한 1976년에 설치한 Australian Academy of Technical Science는 과학 지식을 실용적인 목적에 응용하는 것을 촉

▼ 뉴 사우스 웨일즈大學은 학생들의 면밀한 사고 훈련을 위해 토론과 논쟁 위주로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진하며 과학 지식의 응용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이를 정부와 과학계에 주지시키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 비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활동이 아주 뛰어난 것은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서 실시하는 기초 과학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우수 인재의 체계적 양성, 그리고 끝까지 연구하여도 생활이 보장되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결과라 할 수 있다.

4. 뉴 사우스 웨일즈大學校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호주의 시드니市는 관광으로 유명한 국제 도시이다. 주민이 300만 정도인 시드니는 호주 남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의 수가 많고 해변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시드니市의 남쪽 해변 연안에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교(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가 자리잡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교는 산업과 사회 발전이 급속히 요구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기술(technology)과 응용 과학에 대한 관심 증대에 의하여 1949년 The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Technology 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1953년 의학과 인문계열이 새로이 신설되고 같은 해에 The New South Wales University 라는 학교 명칭이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교(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로 바뀌었다. 1952년에 57명의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현재는 1년 3,500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의 총 등록 학생은 1만 8천 명이고 이중 3천 명 정도가 해외 유학생이고 아시아계 학생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과거의 白瀛主義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시드니의 남서부에 있는 켄싱턴(Kensington) 언덕가의 메인 캠퍼스 크기는 38ha 이고 기차 역에서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어 교통도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교는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현대식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스포츠 센터와 훌륭한 오락 시설을 겸비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양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캠퍼스에는

각종의 다양한 흥미를 가진 학생별로 조직된 100여 개의 씨클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림픽 실내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등이 있고 영화와 연극, 그밖의 각종 리사이틀 등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내 학문 연구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도서관에는 130만 권의 장서와 1만 4천여의 각종 간행물과 시청각 자료 등이 Dewey 체제에 의하여 분류·정리되어 있다. 또한 도서관은 이용 학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와 전 세계를 망라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주요 데이터 베이스와 인공위성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호주내 호주국립도서관(The Australian National Library)과 각 주립도서관과도 연결되어 있어 최신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교의 敎育은 암기 위주이기보다는 개념과 이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적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교과 운영은 면밀한 사고 훈련을 위하여 토론과 논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